

##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頌歌〉와 ‘세계시민’의 정신

송용구

환희여, 그대는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  
그대는 천국의 딸,  
우리는 불꽃에 취하여  
그대의 성스러운 땅에 발을 딛노라!  
세상 풍조로 인해 갈라졌던 것들이  
그대의 매력으로 다시금 한 몸이 되는구나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만인은 한 형제가 되리라

### -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頌歌〉 중에서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실러의 문학은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적떼〉와 〈빌헬름 텔〉 등의 희곡을 썼던 실러는 탁월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시로 손꼽히는 〈환희의 송가An die Freude〉(1785)는 그를 존경했던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합창〉에 삽입되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대(환희)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만인은 한 형제가 되리라”는 문장을 주목해볼까요? 이 문장 속에는 칸트가 제시한 ‘세계시민(코스모폴리탄)’의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인종 간, 민족 간, 지역 간, 남녀 간의 차이를 뛰어 넘어 ‘만인’은 차별 없이 ‘한 형제’로서 동등한 인권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도 실현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의 제목으로 쓰인 ‘환희Freude’가 본래 ‘자유Freiheit’였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를 갈망했던 칸트의 정신세계를 비추어 줍니다. 그 훌륭한 정신이 “부드러운 날개”를 접어 평화의 동지 같은 실러의 시 속에 깃들었네요.